

## 제 5장 결코 흘리지 마라

(갈 5:1~14)

김성우

무엇을 흘리지 말라는 것일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터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율법에 죽었다는 의미는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율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로만 들어가는 것에 한계를 정하지 않고 그 이상임을 보여 주었다. 즉 믿음의 성장에도 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보통, 시작은 믿음으로 하지만 믿음을 갖는 이후부터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전진하고 성장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즉 성화되는 모든 과정에 복음이 관여한다. 결코 복음을 떠난 믿음의 여정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그리스도는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갈라디아인들은 생생하게 묘사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결과 ‘성령을 받았다’. 하지만!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울은 땀에 빠진 갈라디아인 신자들에게, 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 앞에서 밝히 보였기 때문에 이방종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주의) 그렇다고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을 설교를 통해 듣고 믿음으로 믿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끝내신 사건이요, 역사적인 것이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이 행해졌다는 선포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지 그분이 죽음에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 때 더 사람의 마음이 동요하는 것이다.

바울은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을 “육체”와 대조시켰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듣고’)은 단지 그리스도에 관한 주장들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겠다는 노력을 그만두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 다른 이에  
게까지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스스로를 ‘완결’(‘마치겠느냐’, 에  
피텔레오(epi-teleo)) 하려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다. 또한 도덕적인, 직업적인, 관계적인  
성취를 통해 이 ‘완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 애쓰는 자신을 대견스러워 하는 접근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나 육체로 마감 하려는 시도를  
완전 멈추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내가 나의 완성이나 완벽을 이룰 수 있다는 신뢰를  
완전히 등지는 것이다.

갈라디아인들은 생생하게 묘사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결과 ‘성령을 받았다’. 성령  
과 복음은 나눌 수 없다. 성령께서는 복음과 따로 일하지 않으신다. 복음은 성령의 능  
력의 통로이자 형상이다.

#### <사람의 애씀>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인데 갈라디아 신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  
스도를 듣고 믿어 성령을 받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피는” 사람들에게 넘어  
가 “어리석게”되었다. 즉 “노력” 즉 “육체”로 끝을 내려는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포문을 연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방식과 우리 삶을  
나아가게 하시는 방식이 똑같아야 한다고.(??)

#### < 복음을 다시 제시하다 >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의지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해 준다. 우리는 “더 열심히” 라는 구호로 율법을 지키려  
는 자신의 노력에 더 의존하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불순종의 근원은  
행위으로써 의로움을 얻는 체계를 의지해 자신의 삶을 계속 통제해보겠다는 고집에 있다  
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 고집을 뿌리뽑는 과정이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완성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해야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 돌아가서, 그 분이 하신 일의 실재와, 그 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더 깊이  
붙들려야 한다.

우리가 분노와 짜증 등이 나를 엄습할 때는 나를 포함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  
수를 구주로 모신 삶을 시작했지만, 예수님 대신에 구주 노릇을 하는 무엇인가가(예를  
들면 안락, 인정, 자기통제 등) 슬며시 끼어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스도  
가 우리의 소망이고 유익임을 믿지 않고, 또 다른 소망을, 안정감을 주고 완성시켜 줄  
다른 무엇인가를 찾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좀 더 대처가 좋은 그리스도인(?) 이라면 분노가 느껴면 분노를 치워주시도록 바란다  
거나 화를 안 내도록 의지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더 필요한 것일까? 내  
가 진정 완벽하고 소망이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있어야 할 것들인데 아직  
못 받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 해보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나를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근거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위험이 내게도 있는가? 어떻게, 왜 그런가?
2. 나는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시 그려”보는가? 그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가?
3. 늘 짓는 죄를 한가지 생각해보라. 예수 대신 경배해서, 그분께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유혹을 받을 때, 이 거짓 구주를 어떻게 나의 참 주님으로 바꾸겠는가?

<아브라함을 보라>

바울은 5절부터 아브라함을 들어 회심한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유대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원래의 자아상을 바라보게 한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사는 자로 대우하신 것이다. 법적으로 공표하였고 처리하였던 것이다(엘로기스산).

주의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의의 일종이라는 하나님의 호의 즉 일종의 의를 부를 만한 순종의 행위로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실” 때, 그는 법적인 자격을 부여 받는 것이다. 그의 마음과 행위가 실제로는 여전히 불의하여도, 의롭고 정죄 받지 않을 자로 대우하신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기존의 모든 전통적인 종교와도 완전히 갈라선다.

보통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며 그분께 용납된다고 말하거나, 혹은 불의하게 살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다고 말한다.

바울은 의로 여겨주심을 받을 때(즉,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도 그는 여전히 악한 상태

이며 사람이 마음으로 순복하고 예배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의로 여겨주심을 받으려고 삶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의로 여겨주심을 받는다고 하였다.

※ 마틴 루터도 그리스도인은 의로우면서도 동시에 죄인인 존재라고 했다.

#### <아브라함처럼>

바울은 진정한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육체로 난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다 라고 말한다.

갈 3:9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은 무엇인가?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믿은 것이 구원의 열쇠는 아니었다는 것이다.(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 그가 믿은 것은 구원의 약속을 통해 실제 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한 것이다. 둘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다.

#### <두 부류의 민족>

첫 부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부류이며, 또 다른 부류는 율법을 행하는 길을 가는 부류다.

(토론) “~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행복과 성취를 위해서 그것에(~으로) 기대어 산다는 뜻이다. 이것에 관한 좋은 질문 몇가지 ①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② 내 인생은 어떤 초석 위에 올려져있는가? ③ 그것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끼는 대상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서 복이 나온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면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저주 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심리학적으로도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저주받은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한다.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내가 세운 내 기준에도 충분히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과민해지고, 시기심에 불타며, 불안에 떨게 된다.

(토론).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 중에 어떤 것이 율법 아래 살고 있는가?

<저주가 치워지다>

우리가 저주를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물론이다. 예수께서 하신일 때문에 가능하다.

Q. 약속된 축복이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심에 따라 가능한 것이다.

구약에서는 처형시 돌을 던져 죽였다. 그 후에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상징을 삼았다. ((주의) 살아있는 채로 나무에 매단 것이 아니다).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의 표지로 나무에 매단 것이다.

바울은 이점에 주의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사건을 연결하고 있다. 우리를 속량하려고 즉 우리를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놓으시려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이중 전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놓은 저주를 그분이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쌓으신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죄와 저주는 그분에게 넘겨졌거나, 전가되었고, 그분의 의와 복과 성령이 우리에게 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바울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쏟아질 저주를 가져간 것 때문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했다. 이는 법적으로 그분이 죄 자체가 된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죄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죄를 죽여 없앤 것이다.

구원은 용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지 갇아야 할 빛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 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눈에는 계속해서 완벽해 보인다.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다듬어가는 일은 문학작품을 읽는 것보다, 심리극을 하는 것보다도, 힐링을 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십자가에 달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함으로 계속 다듬어 가야 한다. 우리는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일도 없다.

“무엇을 흘리지 말아야 할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으로 바꾼다면..  
자꾸 옛날(잘못된 습성, 내 스스로를 “완결”시키려는 시도 등)로 돌아가려는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 것을.

묵상을 위한 질문

1. 우리가 의로 여김 받은 일이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그리스도는?
2. 율법으로 사는 “저주”의 심리적인 측면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혹은 다른 사람의 경우를 옆에서 지켜본 적 있는가?
3. 갈라디아서 3:13~14절의 진리 가운데 나를 가장 흥분시키는 것은 무엇인가?